“당신의 미소가 내 삶을 어루만지다”

황중환 작가 초대전, 19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부드럽고 따스한 미소의 힘…봄날에 전하는 치유
‘긍정의 대보름달’ 등 신작 포함 총 52점 작품 선봬

‘웃는 얼굴-아빠와 아들’

‘긍정의 대보름달’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제각기 다르듯,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각자의 인생길을 걸으며 큰 성공을 거두기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좌절을 겪기도 한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는 인생도, 반대로 불행하게만 보이는 인생도 알고 보면 저마다의 희로애락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부드럽고도 따뜻한 움직임의 시작인 ‘미소’의 의미를 떠올려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9일까지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초대전 황중환 작가의 ‘A simple smile - 마음을 여는 시작’이다.

조선대 미술대 교수이자 만화가·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 9점을 포함한 작품 52점을 선보인다.

‘A simple smile - 마음을 여는 시작’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그의 그림들은 보고 있으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평소 행복과 사랑, 일상 속 소중한 가치를 화폭에 담아내는 작가는 이번 신작에서도 빙그레 웃음 짓고 있는 주인공과 스마일 캐릭터를 그려냈다.

넓다란 들판 한가운데 둥그렇게 자리잡은 공터는 마치 사람 얼굴 모양이다. 눈코입은 푸릇푸릇한 잔디로, 발그레한 볼은 붉은 색 식물로 표현했다. 웃는 얼굴 안쪽에서는 잔디에 물을 주는 아빠와 꽃을 든 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뜻한 봄의 정경을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번에는 보름달이 웃는다. 한밤중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작은 보트를 탄 부자(父子)와 강아지, 새 두 마리가 줄지어 앉았다. 달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고, 배에 탄 이들도 마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다.

전시장 천정에 매달린 달과 별, 우주선에 탄 토끼도 웃으며 관람객들을 반겨준다.

지난해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선보인 ‘날개’, ‘길’ 등 푸른 숲 속을 거니는 듯한 분위기의 그림도 내걸렸다. 바라보기만 해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의 그림은 지친 일상 속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는 듯하다.

황중환 작가는 “‘세상 최고의 종교는 친절’이라는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자신과 타인을 향해 친절히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사회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전시에 담았다”며 “따스한 봄날 작품을 감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움직이는 시작인 미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이영애 국악예술단 ‘둥기당 가얏고’ 공연 모습

벚꽃 아래 거문고 버스킹

㈔이영애 국악예술단 ‘둥기당 가얏고’ 무대…오늘 동천동 천변

㈔이영애 국악예술단이 따스한 봄날을 맞아 서구 동천동 광주천변 산책로에서 ‘둥기당 가얏고’ 버스킹 공연을 연다.

이날 행사는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주최한다.

5일 오후 6시30분부터 펼쳐지는 이날 공연은 ㈔이영애 국악예술단 단원 11명이 출연한다. 가야금병창을 비롯해 판소리, 단가, 국악가요, 경기민요 등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무대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인 이영애 명창과 국악전수관에서 가야금병창을 수강 중인 제자들이 사랑가, 사철가, 도라지 등 우리 귀에 익숙하고 흥겨운 우리 가락을 들려준다.

특별 출연으로는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고법을 지도 중인 이명식 고수, 경기민요 이수자 고재곤 명창, 송원초 4학년 하서율 양이 함께 한다.

부대행사로는 가야금 배우기 체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전통 국악의 향기 속으로

내일부터 전남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악희 ‘그린국악’ 시즌2

지난해 열린 토요 가무악희 ‘그린국악’ 공연 모습.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 가무악희 ‘그린국악’ 두번째 시즌이 오는 6일부터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올해 ‘그린국악’은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통 국악 작품들로 관객을 맞는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국악 무대들이 눈길을 끈다.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 대목’, 춘향가 중 ‘쑥대머리 대목’, 심청가 중 ‘젖동냥 대목’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판소리 눈대목들을 엄선해 선보인다.

한영숙-박재희류 태평무, 이매방류 승무,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삼도사물놀이 등 군더더기 없는 오리지널 가무악희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특집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달 4일 어린이날 맞이 특별 편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한 할인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특집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최명진 기자

난생 처음 만나는 발레의 세계

발레 입문자 위한 ‘백조의 호수’…13-14일 ACC 어린이극장

“발레의 교과서로 불리는 ‘백조의 호수’ 속 주요 장면, 해설과 함께 즐겨 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난생처음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사진)를 오는 13일과 14일 오후 2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백조의 호수’는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음악과 안무는 물론 1인 2역의 발레리나,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 환상적인 군무 등 발레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작품으로 세기를 넘어 현재까지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백조의 호수’ 중 대표 장면인 백조와 왕자의 춤, 네 마리와 두 마리 백조의 춤, 왕자의 신붓감을 고르기 위해 무도회에 등장한 여러 나라 공주들의 춤 등을 선보이는 갈라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발레 마스터가 발레의 역사부터 작품의 유래, 무대 뒤 이야기, 발레의상과 토슈즈의 유래, 동작 해설 등을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며 관객들이 발레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4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1만 5천원이다. ACCF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맑은물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옥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옥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곡성군 GOKSEONG COUNTY 문의 : 062)650-2099